

지역 소식통

군산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展'

군산시가 지원하고 군산대학교가 운영하는 2016년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이 '도시재생展'을 오는 16일부터 10일간 영화동 이담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간의 축에 따라 군산 원도심의 공간과 사람들의 삶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과거 흔적을 기록한 군산 기억지도로 만날 볼 수 있는 '옛 기억 속, 나의 삶' 冊子, ▲원도심 토박이 주민들의 이야기와 도시재생대학에서 진행한 다양한 강좌의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군산은' ▲군산의 미래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솔직한 바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리가 살고 싶은 GUNSAN'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금석배 축구대회 준비 만전

군산시가 '2017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를 맞아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금석배 축구대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군산월명종합경기장의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초등부 및 고등부 등 130여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기간 중 선수단과 가족, 관람객 등 많은 방문객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숙박업소 139개소, 음식점 177개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은 물론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석배 축구대회 기간 중 군산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숙박 및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서, '포켓몬 고' 국내 출시 교통사고 예방 총력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에서는 최근 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서 공식 출시됨에 따라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해당 모바일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한 이용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상자 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표시장치조작 단속을 강화하고 SNS, 플래카드, 서한문 등을 이용해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 게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임피면, 봄철 산불예방 총력

군산시 임피면은 겨울 가뭄으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1월 중 강수량이 지난해의 38%(16.1mm)에 불과해 산불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다.

더욱이 임피면은 축성산과 용천산, 남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 봉황공원묘지가 자리하고 있어 방문객 출입이 잦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임피면은 산지와 인접한 관내 12개 모든 마을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해 산불제로 결의를 다지고, 산불 위험 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을 배치하는 등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인구 30만 지킬 것”

시, 인구정책계 신설·중장기계획 수립·추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부터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한 결과 익산시 인구늘리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인구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일단 단기계획으로는 6대 시책사업인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출산장려조례 개정,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유아 보건의료 확대 시행이 있으며,중장기계획으로는 4대 시책사업으로 기업유치, 출산장려·보육시책 강화, 생활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월중에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전입대학생 장학금지원, 인구증가 유공 기관·단체 지원 등의 시책 추진을 계획중이다.

또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

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각종 시책 외에도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시 인구증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6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였으며, 1차원 1명 이상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 추진 등 인구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 인구수 감소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2016년 말 기준으로 30만479명으로 30만명을 지켜냈다.

올해 1월에는 582명이 증가하여 2017년 1월말 현재 30만1,061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2년 동안 매달 평균 18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구 증가는 그동안 정 시장을 비롯한 전직직원들의 사활을 건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익산시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대장상 주택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상호대사를 통해 실거주 미전입자 파악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의 주수자에 대한 전입유도로 지방세 확충과 함께 인구증가에도 효과를 거둬오며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 외에도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내 군부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부대원을 대상으로 한 익산 주소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군부대 간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통리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 유관단체들과 함께 『인구늘리기 범시민운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익산 시민 모두가 현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앞으로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인구증대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며 “인구증가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익산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익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각종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만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쇠퇴한 영동상권 활성화

“업종전환·도시기반조성 시급”

쇠퇴한 군산 영동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상가들의 업종전환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과 하수관거처리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중앙로에 자리한 영동패션거리 지중해 스타일로 조성되어 있다”면서 “업종전환을 통해 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특화거리(커피전문점 등)를 조성해 연인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일대의 하수관거시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종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동일대의 하수관거시설은 생활오수·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관거’로 운영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활오수처리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이런 실정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오수·우수를 분리해주는 ‘분류식관거사업’을 시급히 추진해 영동 지역민들의 업종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영동상가 번영회 관계자는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겠나”면서 “군산시가 조속히 생활오수처리시설을 갖춰준다면 업종전환은 상인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하수관거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영동상가 일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해서는 본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국가사업으로 금암분구(영동·중앙동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 주민공동협의체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2일 중앙동에서 익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 임원들과 정현을 익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에 새로 위촉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인 오민근 박사의 위촉식이 진행됐다.

오민근 박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공공디자인 포럼 기획위원과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를 역임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통한 도시재생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임원진 10명(회장 장경호, 부회장3, 본과위원장2, 총무, 간사)과 원도심 활성화 방향 및 방안, 주민공동협의체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경호 회장은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시에기를 놓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참신하고 현실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업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전문가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에서는 원도심지역에 전진 배치시킨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주민공동협의체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 45명이 모여 구성된 주민 참여 기구이다. 도시공간분과, 도시재생분과, 도시공동체분과, 문화공동체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시재생추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 자발적인 원도심 지역자산 조사·분석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간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2호 발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2일 겨울철 많이 재배되는 토마토, 딸기, 오이 등 시설재배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진딧물, 바이러스병 등 주요 병해충 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제2호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반드시 관리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별 야간 생육 적온을 유지하고 주간에는 환기를 실시하여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병해충이 발생하면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진딧물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크기가 작아 예찰이 어렵고 발생된 경우에는 주로 바이러스병을 옮기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내에 잡초를 제거하고 끈끈이트랩 등을 설치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 가지에 알집을 만들어 월동하므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잘라내어 소각 또는 매립 해주어야 한다. 꼬마배나무이는 성충

형태로 월동하는데 2월 중순에 나무 위로 올라와 산란하므로 포장을 주의 깊게 살펴 작기에 기계유제 등으로 초기에 방제를 해야 한다.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변화에 따른 시설재배작물의 잿빛곰팡이병,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진딧물 등 주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물별 병해충 관리요령,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예찰과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일 아동미술 교류전 개최

내일부터 9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순수 민간교류를 통해 성사된 한·일 어린이들의 '제1회 한·일 아동미술 교류전'이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어린이들의 작품 24점과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축제기간 중 군산지역의 어린이들이 그린 제8회 철새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33점 등 모두 5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행사는 다카마쓰시 일한교류협회와 군산시의 공동참여로 일본과 한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벗어나 어린이들의 순수 미술작품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본과 한국의 미래 발전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다카마쓰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1차 교류전은 일본인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군산시는 일본 다카마쓰시와 2013년도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양 도시 체육단체 친선협약을 맺고 군산제민국제마라톤대회와 선포트 다카마쓰 트리아슬론대회에 상호 참여를 통해 체육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미술 교류전을 통해 양 도시의 우호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42만명의 다카마쓰시는 시코쿠섬 북동부에 위치한 가가와현의 현청소재지로, 세토 내해에 접해있는 항만이 발달한 도시이자 사적·문화재·민속자료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 중국 라오디그룹과 산학협력 나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이춘명 중국 라오디그룹 총재와 조인배 라오디코리아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최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글로벌 산학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대형 국영기업인 라오디그룹은 중국 지질과학관리국을 기반으로 1992년 8개 국영기관 및 기업을 통합해 광산 탐사 개발, 공정설계 탐사, 도로·지역개발, 지질재해 정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라오디그룹은 현재 13개 법인의 계열사와 33개 분야별 전문 업체 및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총남당진에 6,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당진 왜곡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광대 LINC사업단 주관으로 양 기관의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춘명 총재는 중앙도서관과 LINC-3D프린팅실 및 CAD실 등 대학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간담회에서 김도중 총장과 지속적인 산학교류로 양측이 동반 발전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김도중 총장은 “양 기관의 합심이 한국과 중국의 우호증진과 함께 양국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명 총재는 “한강 이남의 대형 종합대학인 원광대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양국의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전면 시행

익산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지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작년 하반기에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9월 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2월2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2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하며 익산시에서는 이치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시기적절,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